

지리산 문화경관의 세계유산적 가치와 구성*

최 원 석**

Value and Composition of Mt. Jiri's Cultural Landscape as a World Heritage*

Choi, Won Suk**

요약 : 지리산은 수많은 사람들이 살았던 오랜 생활문화의 터전으로서 많은 역사유적과 종교경관, 생활경관이 남아있다. 지리산의 문화경관은 산의 신성한 장소성과 사람의 생활문화터전이 통합된 새로운 지평의 산악문화경관의 개념을 제시한다. 지리산은 예부터 '신성한 어머니산'으로 여겨져 신성시 되고 많은 사람들이 거주하였다. 지리산에는 삼국시대의 산성과 가야 고분을 비롯한 각종 역사 유적이 남아 있고, 국가적인 산신제가 행해진 곳으로 현재까지 '남악제'로 이어지고 있다. 불교 사찰에는 수많은 문화제가 있고, 현재까지 불교신앙이 성행하여 살아있는 문화전통을 유지한다. 그리고 다양한 풍수경관이나 다량이 논 등의 생활경관도 함께 존재하면서 역사, 종교문화 등과 어울려 지리산 문화경관의 모자이크를 이루고 있다.

주요어 : 지리산, 문화경관, 세계유산

Abstract : Since people have set up their lives in the Jirisan(Mt. Jiri) for a long time, there are various historical remains and religious and livelihood landscape left. Jirisan has been a sacred ground and the base of livelihood and culture, with both of which Jirisan provides a new concept of a mountainous cultural landscape. Jirisan has long been resided there while hallowing it as a spiritual mother mountain. Various historical remains including mountain fortresses from the period of the Three States and ancient tombs from the Gaya age are left in Jirisan. Namakje which is a religious ritual for the mountain spirit has been conducted until today. Numerous cultural heritages have been preserved in Buddhist temples. The continuously prevalent Buddhism in Korea has helped maintaining the living cultural tradition of Jirisan. In addition, Jirisan has various extraordinary features including history, religion, culture, livelihood forms its own mosaic landscape.

Key Words : Jirisan(Mt. Jiri), Cultural landscape, World Heritage

1. 머리말

이 글은 지리산을 비롯한 한국의 산과 산악(산지)문화경관이 갖는 세계유산적 가치를 탐구하는 의의의 일환으로 구성되었다. 특히 한국의 대표적 명산인 지리산의 세계유산적 가치와 그 구성을 문화경관이라는 코드로 논구하여 세계유산 등재전략을 수립하는 것을 연구의 목적으로 한다.

우리나라는 삼천리금수강산이라는 자부심이 무색하게, 정작 세계유산에 산의 공식명칭으로 등재한 것은 아직 하나도 없는 실정이다.¹⁾ 반면, 중국은 41개소의 세계유산 가운데 8개가 산의 명칭으로 등재되어 20%의 비율에 달한다. 동아시아에서 한국은 다채롭고 독특한 산악문화를 보유하고 산

지 유산을 가진 나라이다. 한국의 세계유산 잠정 목록 중에 산성이 2개나 있는 것도 한국의 산악환경을 반영한 산지형 문화유적의 탁월성을 나타낸 현상이기도 하다.

한국은 2012년 2월 현재 10점의 세계유산이 있는데, 歐美의 선진국에 비해서 늦은 시기인 1995년에야 처음 세계유산에 등재되었다. 그 경향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1995년에 석굴암과 불국사, 종묘, 해인사장경관전을 시작으로 주로 기념물, 건조물과 사적 등의 문화유산 유형으로 등재하다가 근간에는 제주 화산섬 및 용암동굴(2007)과 같이 자연유산도 등재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아직 복합유산은 가지고 있지 않으며, 문화경관 세계유산(내용별)도 목록에 수록되지 않았다. 유산의

* 이 논문은 2007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으며(KRF-2007-361-AM0015), 2011년 11월 18일에 지리산권문화연구단이 개최한 국제학술대회에서 발표한 논문과 『지리산 세계유산 등재 연구용역 종합보고서』에 작성한 내용의 일부를 수정 보완한 것임.

** 경상대학교 경남문화연구원 인문한국 교수(HK Professor, Gyeongnam Cultural Research Institute,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wschoe@empal.com)

형태도 최근에는 조선왕릉(2009), 한국의 역사마을: 하회와 양동(2010)과 같이 개별유산에서 연속유산으로 다양화되었다. 유산의 범위도 초기에는 단일유산의 점 단위에서 경주역사유적지구(2000)의 사례처럼 면(공간) 단위로 확대되었다. 향후의 유산 등재경향을 말해주는 잠정목록 등재현황을 보면 2011년 6월 현재 문화유산 8개소, 자연유산 5개소가 등재되었는데, 유형에 있어 자연유산이 상대적으로 늘어났고, 역사유적 형의 문화유산이 많으며, 대상유산의 내용뿐만 아니라 형태가 다양화되고 범위도 확장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²⁾

작금에는 세계유산에 대한 국민적인 관심도가 높아졌고, 지자체에서도 앞 다투어 지역의 세계유산 콘텐츠를 개발하려 노력하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유네스코 세계유산의 등재기준과 심사는 해가 갈수록 점점 엄격해지고 까다로워지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응하여 한국에서 세계유산을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시스템의 구축은 미비하기만 하다. 세계유산이 갖는 미래지향적 가치를 간과한 일본에서는 세계유산을 전문적으로 연구하기 위한 대학원 전공과정과 세계유산학이라는 분야도 생겨났고³⁾, 중국에서도 세계유산연구센터가 구성되어 활발하게 운영 중에 있다.⁴⁾ 그렇지만 한국에서는 세계유산에 대한 학계의 종합적이고 분석적인 연구물도 아직까지 드문 실정이다. 지리학은 세계유산 관련 분야에서 기여하기에 적합한 학문체제를 갖추고 있지만⁵⁾, 세계유산에 관련된 학술적인 연구물은 희소하고⁶⁾, 사회적 수요와 체계적 연구의 필요성에 아직 적극적으로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근자의 세계유산 등재 추세에서 새롭게 대두되었던 문화경관 유형의 유산에 대해서는 문화역사지리학의 접근 및 연구방법이 적합함에도 불구하고 학계에서는 아직 큰 관심을 기울이지 못하였다. 이 글은 유네스코 세계유산의 가치기준에 준거한 지리산 문화경관의 세계유산적 가치에 대해 학술적인 연구를 시도했다는 점에 있어서 의의를 두고자 한다.

위의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몇 가지의 검토와 서술 과정을 거치고자 한다.

첫째, 지리산 세계유산 등재의 표적화 전략을 ‘문화경관’ 범주로 제시할 것이다. 지리산에는 오랫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생활문화터전으로 살아왔

기에 자연과 문화의 상호작용으로 빚어진 문화경관의 형성이 복합적으로 드러나기 때문이다. 지리산의 세계유산적 가치는 기념물, 건축물, 유적 등의 개별유산적 범주가 아니라 ‘문화경관’이라는 통합적 범주의 틀에서 제시되고, 종합적·관계적 관점으로 평가되는 방식이 적합하다고 판단된다.

둘째, 지리산 문화경관의 세계유산적 가치와 정체성을, ‘인간과 환경 간 상호작용의 다양성, 복합성, 결합성, 조화성’으로 요약하여, 산과 사람의 유기적 결합 및 상호 관계의 복합적인 네트워크로써 부각할 것이다.

셋째, 지리산 문화경관의 경관요소와 구성관계를 열거하고 각각의 세계유산적 가치에 대하여 등재기준에 맞춰 설명할 것이다.

넷째, 지리산 문화경관의 세계유산적 가치와 의미, 그리고 등재기준에 합당한 측면에 관하여 요약하여 설명할 것이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향후에 지리산을 위시하여 한국의 주요 명산을 세계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한 논리의 구축 과정에 있어 도움이 될 수 있으리라 믿는다. 지리산의 세계유산적 가치를 탐구·제기하는 외연적인 의의는, 세계유산의 평가지침에 있어 서구적 관점의 잣대와 미학적 편향성을 극복하고, 산악문화에 대한 서구적 인식의 한계를 넘어 동아시아의 산악문화와 미학을 제시함으로써 산 세계유산의 개념을 재정립하는 데에도 있다.

2. 지리산 문화경관의 세계유산적 정체성

문화경관 유형의 세계유산은 1992년에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새로 채택된 세계유산 범주의 목록으로서, 자연과 인간의 상호관계를 주목하고 자연과 인간의 상호작용으로 형성된 유산의 가치를 중시하는 것이 주 내용으로 한다.

지리산은 한국의 명산 중에 많은 사람들이 오랫동안 생활문화터전으로 살아온 대표적인 산으로서, 지리산의 문화경관에는 자연과 인간의 정신적·물질적 연계와 상호작용이 다양하게 반영되어 있다. 따라서 세계유산 목록 중에서 문화경관의 세계유산 범주에 적합하다고 판단된다.

지리산 문화경관의 정체성은 사람들이 지리산의 자연환경, 사회, 역사, 경제, 문화 등과 매개하면서

표 1. 지리산 문화경관의 세계유산적 정체성

정체성	신성한 어머니 산	
구성 요소	성스러운 산(靈山)	모성·모태의 산
	겨례의 영산 삼신산(방장산) 산악신앙(성모천왕 등), 산신각 산지 종교경관의 복합 클러스터 선비의 유산로와 성찰의 길	생태적 흙산(土山) 생물의 서식지, 隱者의 거주지 생활문화터전과 취락 청학동 유토피아 멸종위기종·고유종·희귀종 서식지 한국전쟁과 빨치산 유적
	靈山·神山	사람의 산, 인문의 산, 역사의 산
의미	산의 신령한 장소성과 사람의 삶·문화가 융합된 산	

상호관계를 맺으면서 형성한, ‘다양성(diversity), 복합성(complexity), 결합성(combination), 조화성(harmony)’의 특징으로 집약되는 가시적인 문화복합체이다.

지리산 문화경관의 개념적이고 상징적 이미지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신성한 어머니 지리산(Spiritual Mother Mountain, Jiri)’이라는 슬로건으로 요약할 수 있다. 지리산의 이미지는 성스러움과 모성을 결합하여 나타낸다. 그 성스러움의 이미지는 지리산의 靈山과 神山の 속성이며, 어머니의 이미지는 만물을 키우는 모태의 산, 사람의 산·인문의 산이라는 함의를 내포한다. 그것은 다시 산의 靈성과

사람의 삶·문화가 융합된 산’이라는 내용 범주로 포괄된다.

신성한 어머니는 지리산의 상징체이자 아이콘이다. 지리산의 어머니로서의 정체성은 지리산의 기후, 지형 등의 자연환경뿐만 아니라 문화, 역사 등의 인문환경적 조건이 겸비되었기에 가능했다. 아울러 어머니 산이라는 이미지와 정체성에는 영산으로서의 지리산이 갖는 장소의 성스러움과, 못사람들과 생명을 끌어안고 베푸는 지리산의 모성적 이미지가 통합되어 있다.

신성한 산이라는 의미는 지리산의 靈山과 神山으로서의 이미지와 내용을 담는다. 지리산은 ‘민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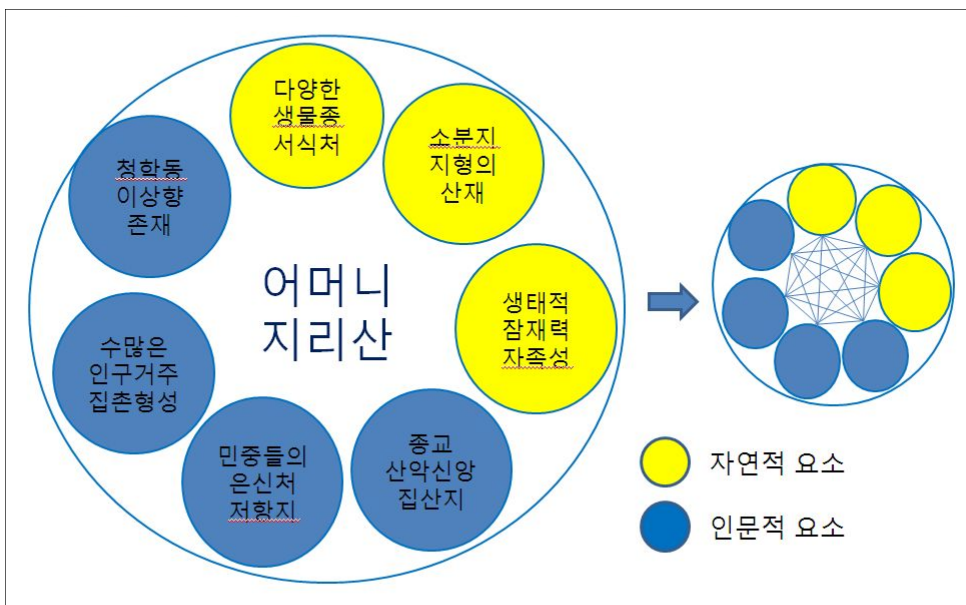


그림 1. 어머니 지리산의 요소구성과 상호연계

의 靈山이라는 일반적 수식어가 있으며, 삼신산의 하나인 방장산으로 조선초기부터 일컬어져왔다. 또 지리산은 다양한 위계와 형태를 가진 산신신앙의 메카이기도 하다. 역사적으로도 오랫동안 민간에서는 지리산에 聖母(혹은 天王聖母)의 신이 있다고 여겼으며, 최고봉인 천왕봉의 聖母祠(천왕사)에는 성모상이 있었다.

어머니산이라는 상징은, 지리산이 형상으로도 산의 모양이 土山이고 골짜기가 깊어 어머니처럼 포용하는 이미지로서 후덕한 모습이며, 그래서 隱者들과 만물을 품어 안고 키우는 산으로 인식되었다. 생태적으로도 온 생명을 살리고 아우르는 산이기에, 지리산은 높은 植皮密度와 1,517종의 식물상과 2,808종의 동물상 등 총 4,994종의 생물자원이 서식하는 다양하고 풍부한 생태환경을 가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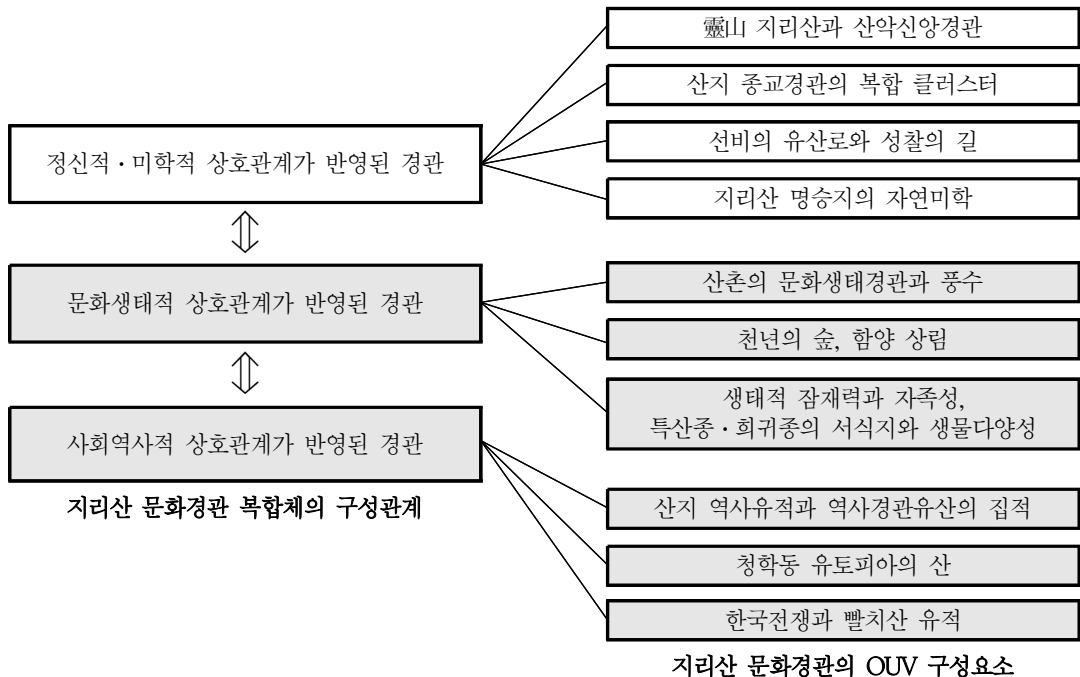
어머니 지리산의 모태적 속성은 수많은 인구의 수용과 집촌의 형성이 가능한 지형, 기후환경과 벼농사의 생산방식으로도 표현될 수 있다. 지리산은 자연적 조건으로도 사람들이 취락을 이루며 문화를 형성하기에 이상적인 지형, 지질, 기후 등

을 갖추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 지리산 속에는 크고 작은 여러 산간분지들이 분포하여 있으며, 그 속에서 集村을 이루면서 지속가능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벼농사의 자연환경적 조건을 갖추었다.

지리산은 사람의 산, 인문의 산, 역사의 산으로서의 의미와 정체성을 지녔다. 한국의 명산에서 지리산만큼 오랜 생활문화터전이 된 산이 없을 뿐만 아니라, 여타 기존에 등재된 세계유산의 산을 비교해 보아도 지리산만큼 자연, 생태, 역사, 문화, 취락, 종교, 사람의 삶이 집적되고 결합된 산은 찾아보기 힘들다. 지리산의 자연과 문화역사적 통합성은 인간과 자연환경의 상호작용과 유기적 결합을 경관에 반영하였다. 오랜 삶의 터전으로서의 지리산은 유불선의 종교, 사상, 문학, 예술 등의 인문정신의 정수가 집약된 산이다.

요컨대 지리산은 자연적 가치와 문화적 가치가 역사적 과정에서 복합적으로 연관된 문화경관을 이루고 있다. 지리산 문화경관의 세계유산적 컨셉은 ‘자연(산)-문화(사람)-역사 복합체’로서, 산의 인문화(인간화, 문화화, 신앙화, 미학화)이다. 지리

표 2. 지리산 문화경관의 구성관계와 구성요소



산 문화경관의 가치구성은 ‘산과 사람의 유기적 결합 및 상호관계’를 반영하는 3가지 관계와 10가지 요소의 복합적 네트워크로 이루어진다(표 2).

3. 지리산 문화경관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OUV) 구성

지리산 문화경관 복합체의 세계유산적 가치를 구성하는 세 가지 범주로서, 정신적·미학적 경관, 문화생태적 생활경관, 사회역사적 경관을 제시할 수 있다. 이들 범주들은 모두 자연과 사람의 상호관계를 반영하는 것으로서 상관적으로 관련을 맺고 있으며, 지리산의 문화경관적 정체성을 표현하는 각 측면이기도 하다. 각각의 범주를 구성하는 지리산의 문화경관 요소들은 사회역사적 과정에서 자연환경 및 정신적 가치와 합일되어 있으며, 장소의 혼(spirits), 토지이용, 문화생태적인 산지생활사의 전통지식을 구체화하여 담고 있다.

지리산의 문화경관에서 나타나는 사람과 자연간의 탁월한 상호작용으로서의 보편적 가치(OUV) 요소를 드러내고 평가하면 다음과 같다.

1) 산과 사람의 정신적·미학적 관계가 반영된 경관

(1) 靈山(神山) 지리산과 산악신앙경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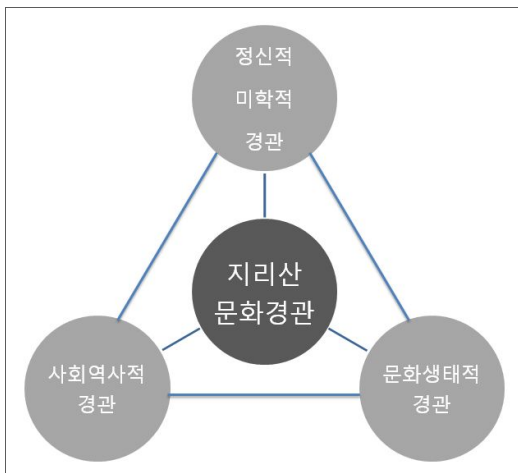


그림 2 지리산 문화경관 구성요소의 상관 관계와 네트워크

지리산은 자연경관에 정신을 통합한 상징적 문화경관을 보여주는 뛰어난 사례가 된다. 지리산이 영산으로서의 정체성을 갖추면서 형성된 산악신앙의 문화경관은, 산과 사람의 정신적·문화생태적 관계를 탁월하게 증거하는 보편적 가치가 될 수 있다. 자연신앙의 대표성을 반영하고 있는 지리산의 산악신앙은 동아시아 및 한국 산신신앙의 전형일 뿐 아니라 그 형태적·위계적 다양성, 문화적 교류와 융합의 측면에 있어서도 중요한 가치를 갖는다.

지리산에는 聖所(神祠, 산신당 등), 산악신앙, 종교(유, 불, 선, 무교 등)가 총 집결되어 있으며, 국가, 지방, 민간 등 다양한 계층과 위계의 산신신앙이 집중적으로 존재한다. 특히 지리산은 산신신앙의 고대적 원형으로서 여산신(성모, 노고)이 나타나는 현장이다. 민간에는 오래전부터 천왕성모의 산신이 머무는 곳으로 인식되어 왔다.

지리산은 일찍이 신라시대에 남악에 지정되어 국가적인 의례가 있었고, 그 의례는 현재까지 지속된다. 현존하는 남악제는 통일신라에서 시작되어 고려, 조선을 거쳐 대한제국까지 천 년을 넘게 이어진 국행제로서 국가적인 산악신앙 제의이다.⁷⁾ 또한 지리산은 한국의 대표적인 삼신산(방장산)의 하나로서, 방장산이라는 명칭은 조선 초부터 등장하는 600여 년의 전통을 가진다.⁸⁾ 지리산의 남악 혹은 방장산이라는 별칭은 중국의 오악사상과 삼신산 사상이 한국으로 전파된 것을 증거한다.

지리산지에 나타나는 산악신앙경관의 문화요소들은 상호교섭된 복합된 형태가 나타난다. 산악신앙은 종교(유, 불, 도, 무속), 마을민속과 결합되고 있으며, 특히 불교와 산악신앙의 융합은 사찰 내의 산신각으로 반영되었다. 남악제 등의 산신제에서 나타나는 유교적 제의 방식이라든지, 민간 산신제의 무속과 마을신앙과의 결합 등은 중국과 일본의 산악신앙과 비교될 수 있는 차이점이기도 하다. 지리산지에는 주민들이 주체가 되어 토착화된 민간산신당과 남악제 등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산신신앙과 산신제의가 현존하는 진정성이 있다.⁹⁾

(2) 산지 종교경관의 복합 클러스터

지리산권역은 서원(儒), 사찰(佛), 마을신앙, 도교 및 신선 유적(仙道), 무속신앙의 밀집처이다.

이러한 지리산지의 종교경관은 현재 진행형 문화로서의 진정성을 유지하고 있다. 지리산지의 종교는 산악과 유, 불, 선의 문화생태적 적응 및 조화를 반영하고 있으며, 문화요소간의 교섭과 교류의 측면에서 보아도 산악신앙과 불교, 선도, 샤머니즘간의 상호융합을 제의, 사상성, 민속 등의 측면에서 반영하고 있다.

지리산은 6세기부터 9세기에 걸쳐 교종 및 선종사찰이 건립된 한국 최초의 전형적인 산지사찰경관을 나타낸다. 아울러 칠불사 등의 사찰연기는 불교의 해양 전파 경로를 증거한다. 특히 지리산에 입지한 초기 사찰군은 교종의 화엄사상과 선종의 동아시아적 교류를 보여주며 그것은 사찰의 건축과 배치에 반영되었다. 지리산 사찰건축의 역사성과, 화엄사 각황전의 중층지붕이나 다포계의 전형성 등의 건축적 탁월성도 돋보인다. 지리산 사찰군의 종파적 다양성과 수백 개에 달했던 사찰들은 지리산 종교경관이 가진 특징 중의 하나이다.

지리산의 종교건축경관에서는 산과 사찰의 심미적 결합양상도 돋보인다. 지리산 소재 사찰경관의 뛰어난 자연조화미와 장소에 구현된 정신성은 중국과 일본을 대비해 보더라도 동아시아적 자연관을 탁월하게 대표하는 요소가 된다.

(3) 선비의 遊山路와 성찰의 길

유산로(heritage route)는 문화경관의 독특하고 다이내믹한 형태이다.¹⁰⁾ 문화루트 혹은 遺産路(heritage route)가 키워드가 되어 세계유산으로 된 사례는 1998년에 등재된 프랑스의 콩포스텔라의 쟁띠아쥬 길(Routes of Santiago de Compostela in France)과, 2004년에 등재된 일본 기이산지의 영지와 참배길(Sacred Sites and Pilgrimage Routes in the Kii Mountain Range)이 있다.

지리산의 유산로는 산과 유학사상, 산과 유교문화가 정신적으로 연계된 문화루트로서 의의가 있다. 이것은 기존에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문화루트와는 차별되는 조선시대 유학자들의 성찰의 길이라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 지리산을 내면적 성찰의 대상으로 관계를 설정하여 풍부한 의미체계와 내용으로 형성되었다.

조선시대 유학자들의 지리산 遊山文化의 사상적, 문학적 전개는 동아시아적 명산문화의 기록유

산에 비추어서도 탁월성을 갖는다. 조선시대의 선비로서 지리산을 유람하고 遊山詩를 남긴 사람은 1천명이 넘는 것으로 추정되며, 그들이 남긴 詩文도 수천 편에 이른다.¹¹⁾ 현존하는 100여 편이 넘는 지리산 유산지 자료는 조선 초부터 500여 년에 걸쳐 있다는 점에서 세계적인 산악 트레킹 문화 기록유산이라는 가치를 가진다. 특히 무형적 가치가 뒷받침되는 유산이 세계유산 선정에서 강점이 있는 추세를 반영하자면 지리산 유산로의 가치는 배가된다.

(4) 지리산 명승지의 자연미학

한국에 있어서 산과 사람의 정신적 관계는 심미적 형태로 결합되어 있다. 이것은 자연과 인간의 관계에 대한 한국의 심미적 문화전통을 반영한다.

현재 지리산에서 국가지정문화재로서 지정된 명승 중에 ‘지리산 화엄사 일원’(명승 제 64호, 2009)은 역사문화경관으로, ‘지리산 한신계곡 일원’(명승 제 72호, 2010)은 자연경관(-지형지질경관)으로 분류되어 지정되었다. 그리고 ‘지리산 대원사 일원’은 경상남도 기념물(제 114호)로서 문화경관으로 분류, 지정된 명승지이다. 이를 포함하여 지리산의 자연미가 뛰어난 뿐만 아니라 미학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주요 인문 및 자연경관의 명승지는 탁월한 보편적 가치의 대상 요소가 된다.

지리산의 아름다움은 역사적 과정에서 수많은 사상가들과 문인들에게 영감과 찬탄의 대상이 되었으며, 그것은 지리산의 문화요소와 자연의 어울림 및 그 상호작용으로 빛어진 자연미학이다. 지리산의 자연미는 지리산의 문화경관을 이루는 미학적 토대이자 구성요소이며, 靈山으로서의 지리산의 정체성을 유지·보전하는 필요충분조건이다. 지리산의 자연미는 문화경관의 범주에서 문화요소와의 접합을 통해서 구현되므로 서로 분리될 수 없는 성질의 것이다. 예컨대 지리산의 명승과 경치는 古刹과 어우러져야 탁월하게 드러나는 것으로, 이것은 형상과 배경의 조화와 통합을 반영하는 게슈탈트(Gestalt) 미학이다.

지리산의 명승이 갖춘 자연미학은 동아시아적 산수미학의 보편성과 한국적 대표성을 지니고 있다. 지리산의 자연미는 세계유산 등재 기준(vii)의 “뛰어난 자연미와 미학적 중요성”에 대해 동아시아

아적 산수미학의 관점과 지평을 제시하면서 개진될 필요가 있다. 조선시대 지리산의 유산기에서도 드러나지만, 동아시아에서의 산수는 객관적 자연 대상물이 아니라 천인합일의 상대이자 정신적 가치를 비추는 심미적 거울이다.

지리산이 지닌 미학적 중요성은 인간적인 산의 미학적 속성으로도 평가될 수 있다. 비너스를 포함한 그리스 인체 조상의 미학은 가장 인간적인 것이 가장 아름답다는 사실을 반영한다. 어머니의 품처럼 사람의 영혼과 삶의 안식처가 되어주는, 가장 인간적인 형상과 이미지의 산이 가장 아름다운 산일 수 있다.

2) 산과 사람의 문화생태적 관계가 반영된 경관

(1) 산촌의 문화생태경관

지리산지의 생활문화경관은 지리산과 주민의 상호작용을 대변하는 대표적 사례가 될 수 있다. 지리산지의 취락은 생활문화터전으로서 역사성을 갖추고 있을 뿐 만 아니라 지리적으로도 넓은 분포 지역을 가지고 있다. 지리산권역에는 10여개에 달하는 읍취락이 분포하고 있으며, 산지의 곳곳에 벼농사를 위주로 하는 集村이 형성, 발달하였다. 집촌적 촌락형태의 형성과 발달은 지리산지의 자연환경적 배경과 조선시대의 사회역사적조건이 반영된 특성이기도 하다. 이러한 측면은 중위도 대륙 東岸에 위치한 지리산지 마을주민의 산지적응과 산림경제의 우수성으로 나타났으며 계단식 논과 같은 농경지의 확보 및 관개·수리기술은 조선시대 농경의 중요한 단계를 표현하는 문화경관의 탁월한 사례가 될 수 있다. 또한 산나물과 약초 등과 같은 산지 섭생식물의 채집도 지리산의 산지적응을 잘 반영한다.

지리산 산촌취락의 문화생태적 고유성이자 지리산지의 독특한 환경적응과 조화방식은 풍수문화의 발달과도 긴밀한 관계를 갖는다. 지리산은 한국풍수의 시원지로서, 한국풍수의 시조로 일컬어지는 도선(827~898)이 풍수를 전수받은 곳이다. 현재 지리산권역의 마을에는 500개가 넘는 다양한 풍수형국이 존재하고 있어,¹²⁾ 산촌의 풍수경관은 문화생태적 경관의 한국적 특성을 이룬다. 이것은 산지환경에의 적응과 자연과 인문의 결합을 반영하

고 있고, 한국적인 독특한 자연-인간관계 코드를 표현하였다. 지리산지 마을의 풍수문화는 처한 자연환경에 대한 주민들의 문화적 적응전략으로서, 마을의 지속가능한 환경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한 전통적인 문화생태학적 방식이자 지식체계라고 평가할 수 있다. 지리산지의 풍수경관은 자연과 문화가 유기적으로 조화, 결합된 문화생태적 경관으로서 세계유산적 경관가치를 지닌다.¹³⁾

(2) 천 년의 숲, 함양 상림

삼림으로 세계유산에 등재된 사례는 89곳(2005년 현재)으로, 그 중 22곳이 열대 생물군계에 있다.¹⁴⁾ 2005년에 등재된 나이지리아의 오순-오소그보 신성숲(Osun-Osogbo Sacred Grove)과 2008년에 등재된 케냐의 미지켄다 부족의 카야 聖林(Sacred Mijikenda Kaya Forests)은 성스러운 숲으로 세계유산이 되었다. 함양의 상림은 기존의 삼림 세계유산과는 차별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다.

상림은 1,100 년이 넘는 역사성을 지닌 한국 및 동아시아 취락 숲경관의 전형적이고 대표적 경관 사례이다. 옛 이름은 大館林이다. 상림은 함양 고을의 수해를 막기 위해 9세기 후반에 최치원(857~?)이 조성한 인위적인 방재림으로서, 역사성에서의 탁월성과 진정성, 완전성을 보유하고 있다. 심미적으로도 주거지와 숲의 조화로운 앙상블을 이루며 蔚蔚景觀의 아름다움을 보여준다. 상림 경관은 역사적 과정에서 다양한 문화요소와 기능의 교류와 결합을 반영하고 있으며, 풍수비보숲으로도 기능하였다. 상림은 지리산권의 여러 마을숲 분포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준 원형적인 취락숲이다.¹⁵⁾

(3) 생태적 잠재력과 자족성, 특산종·희귀종의 서식지와 생물다양성

지리산은 생태적 잠재력과 정주의 자족적 조건에 있어 탁월한 자연환경을 지닌 산이다. 지리산은 다수의 봉우리, 골짜기, 산간분지로 구성된 큰 규모의 山體를 지니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전 사면에 일정두께의 토양 피복을 형성하였으며, 벼농사에 충분한 강우량을 가지고 있다. 생물적으로도 다양하고 풍부한 생태환경을 갖추고 있다.¹⁶⁾

지리산국립공원은 4,494종의 생물자원이 분포하며 2007년에 IUCN 카테고리 II 지역으로 인증된

생물자원의 보존가치가 높은 곳이다. 지리산에는 멸종위기동식물 35종이 서식한다.¹⁷⁾ 그리고 지리산에만 자생하는 특산종은 식물 16종이 있다.

지리산 생태계 보존지역(노고단, 반야봉, 피아골, 심원계곡 일대)의 원시림과 생태복원지역인 제석봉일대의 구상나무 군락지는 한국 특산종과 희귀종의 서식지이자, 반달곰의 서식지로서 가치를 지닌다.¹⁸⁾ 그리고 지리산지의 전통적인 토지이용 형태는 생물다양성의 형성과 유지에도 기여했을 것으로 판단된다.¹⁹⁾

3) 산과 사람의 사회역사적 관계가 반영된 경관

(1) 산지 역사유적과 역사경관 유산의 집적

지리산은 청동기 유물, 가야시대 고분, 산성유적 등 문화재의 보고이다. 국내에서도 지리산 권역은 가장 많은 문화유산(지정문화재) 보유하고 있다. 전국 총 605개의 지정문화재 중에 90개(15%)를 가지고 있으며, 이것은 경주의 62개보다도 훨씬 많은 숫자이다.

그 중에서도 지리산의 국보유산인 화엄사 각황전, 각황전 앞 석등, 사사자삼층석탑, 영산회괘불탱, 연곡사 부도(2개) 등이 대표적이며, 특히 석탑은 중국에서 목조건축 양식을 이어받아 천년의 세월을 이어가면서 다양한 형태와 지리적 분포를 통해 한국적 석탑문화로 발전된 가치가 있다.

지리산지의 주변 권역에는 유교경관(서원, 향교, 사우, 누정 등)이 밀집되어 있으며 덕천서원의 제향과 같이 현재에도 지역 유림이 진행하는 유교적 의례의 진정성 조건을 갖추고 있다.

(2) 청학동 유토피아의 산

지리산 청학동은 한국 이상향을 전형적, 대표적으로 드러낸다. 지리산 청학동 이상향은 동아시아 산 유토피아의 전형이자 한국 이상향의 원형성을 가진다. 지리산 청학동 유토피아는 최소 700년의 문화전통을 지닌 동아시아적 유토피아의 역사성과 진정성을 갖추고 있으며, 관련된 많은 고문헌과 고지도 자료가 현존한다.

역사적으로 청학동 이상향은 지리산지 주민들의 생활사와 삶이 구현된 곳이라는 현장성과 진정성을 가졌으며, 그것은 목계리 청학동으로 살아있는

전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다. 지리산 청학동은 유학자들과 지역주민들에 의해 유토피아로 선망되었던 설화공간이자 상징공간이었고, 민간계층이 마을을 이루고 거주하면서 풍수도참의 텍스트로 재현한 생활공간이었다. 오늘날에는 정부·지자체·주민·관광자본에 의해 재구성된 대중문화의 관광공간이 되었다.

(3) 한국전쟁과 빨치산 유적

지리산의 한국전쟁과 빨치산 유적은 지리산지에 20세기 중반의 세계사적인 이념과 정치세력이 충돌하여 상흔을 남긴 전쟁경관의 역사적 의미를 갖고 있다. 지리산은 제국주의 열강의 대립으로 빚어진 한국전쟁과 그 역사적 과정에서 전개된 분단의 극복을 위한 민중들의 저항의 현장이었다.²⁰⁾ 지리산의 한국전쟁과 빨치산 활동을 내용으로 여러 전쟁 관련 소설 등의 문학작품도 창작되었다.

4. 지리산 문화경관의 세계유산적 가치와 의의

1) 세계유산적 가치와 의의

지리산 문화경관이 갖는 세계유산적 가치(OUV)는 인간과 환경 간 상호작용의 다양성, 복합성, 결합성, 조화성을 탁월하게 드러내는 산 문화경관의 사례로 요약, 평가될 수 있다.

지리산의 종교문화경관의 측면에서, 다양성으로 보자면 지리산만큼 다양한 신앙과 종교경관이 집합적으로 보이는 산은 드물고, 역사적 과정에서 불교, 도교, 유교, 무속 등의 제 신앙형태는 서로 복합·결합되어 있다. 그리고 여러 종교경관들은 자연환경과 미학적으로 어우러져있다.

지리산의 문화경관은 산지환경에 대한 문화생태적인 적응을 증거하는 탁월한 사례가 된다. 유네스코 세계유산 운영지침에서 정의된 문화경관의 개념에 비추어볼 때, 현존하는 지리산의 촌락경관은 대체로 18세기 이후 산지 취락의 형성·발달과정을 드러내며, 지리산지의 자연환경에 적응하면서 발달한 벼농사 위주의 농업경관은 지속가능한 토지이용의 전통적 기술이 집약되어 있다고 평가된다. 지리산의 문화유산과 건축경관은 자연과의

미학적 조화를 기조로 입지되고 배치되었으며, 그 속에는 지리산과의 정신적인 연대관계가 깊이 반영되어 있다.

지리산의 문화경관의 유산 가치는 기본적으로 문화유산 범주의 몇 가지 기준에 해당될 뿐만 아니라, 세계유산의 자연미 기준(vii)²¹⁾도 충족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지리산이 가진 자연미는 역사적으로 수많은 문인과 유학자들에게 영감과 찬탄의 대상이 되었으며, 사상, 문학, 예술 등을 통해 사람들과의 상호영향 과정에서 共進化(coevolution) 되었다. 지리산의 자연미는 지리산 문화경관의 아름다움과 미학적 중요성으로 정립되는 토대가 되었다.

지리산 문화경관의 세계유산적 가치는 다시 분야별로, 정신적·미학적, 생활사 및 문화생태적, 사회역사적 가치 등으로 대별할 수 있다. 정신적 가치는 산악신앙과 종교건축경관의 형태로 드러나는 산과 사람의 정신적 네트워크의 측면이다. 또한 조선시대 유학자이 전개한 성찰의 유산문화로 대변되며, 구체적인 요소로는 선비의 유산로와 유산기 문학이다. 아울러 미학적 가치는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지리산의 명승지와 문화경관 등을 들 수 있다. 생활사 및 문화생태적 가치는 지리산의 문화경관이 갖는 자연과 인간의 조화 및 통합성이며 그 대표적 요소로는 산촌 및 풍수를 들 수 있다. 지리산지에 오랫동안 적응하면서 삶을 영위해 온 주민들의 산림경제적이고 농업기술은 조선시대의 산지생활에 관해 축적된 전통지식과 지혜의 보고이다. 사회역사적 가치는 지리산지의 집적된 고대유적과 관방유적, 세계사의 이념이 충돌한 한국 전쟁과 빨치산 경관, 한국의 대표적 이상향인 청학동 유토피아 경관가치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가치 요소에 준거한 지리산 문화경관의 세계유산적 의미는 다음과 같이 몇 가지로 서술될 수 있다.

지리산은 기존에 등재된 유네스코 산 세계유산의 내용범주에 더하여, 산의 신성한 장소성과 사람의 생활문화터전이 통합된 새로운 지평의 산 개념을 제시한다. 기존의 산 세계유산은 산과의 정신적 연계(聖山), 역사문화경관, 종교경관, 인문경관, 자연경관 등의 가치가 개별적이거나 부분적인 요소로 유네스코에 의해 평가, 등재된 경향이 있

었다. 그런데 지리산은 유네스코 산 문화경관의 내용범주에서, 다양하고 복합적인 문화경관으로 반영된 자연과 사람(문화)의 연계와 통합이라는 새로운 전형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세계적 가치를 지닌다. 이것은 산과 사람(문화)의 서양적 이분법의 극복이라는 명산의 동아시아적 관점을 새롭게 제시한다는 의의가 있다.²²⁾

지리산의 문화경관은 온대지역 동아시아 산지의 문화생태적 적응과 조화라는 탁월한 전형을 제시한다. 지리산지의 벼농사 농경 기술과 시스템, 집촌의 형성과 유지는 중위도 산지지역의 적응에 있어 대표적인 사례가 된다. 생활문화터전으로서의 지리산의 문화경관(취락경관, 농업경관, 풍수경관 등)과 함양의 상림숲은 자연과 사람의 상호관계, 유기적 조화관계를 통시적으로 구현한 것으로서 보편적 가치가 있다.

지리산과 주민공동체는 정신적으로 연계되어 산악신앙의 문화적 시스템을 형성하였다. 지리산의 산악문화와 산신신앙의 문화생태적 본질은 산지환경의 적응이며, 그것은 인간화·문화화의 방식으로 나타난다. 그 문화적 형태는 산악신앙 및 제의, 산신당의 마을경관화, 산신신앙과 불교경관의 결합 등이다. 이러한 산과 문화의 통합적 시스템 구축은 기능적으로 산지생활에 적응하였을 뿐만 아니라 삶의 터전으로서 지리산지의 보전과 관리에 기여할 수 있었다.

지리산 청학동은 산에 입지한 동아시아의 이상향의 전형성을 제시한다. 한국의 이상향에서 나타나는 지형특징은 深山의 골(洞)이 지배적으로, 이러한 사실은 서양의 유토피아가 에덴동산의 평원이나 토마스 모어의 유토피아처럼 평지인 것과 분명한 지형적 차이를 나타낸다. 중국 이상향에서 보이는 지형패턴도 무릉도원을 대표로 하는 洞天福地라는 점에서 한국과 같지만 들 혹은 언덕 관념도 드러나고 있어 일정하게 구별된다.²³⁾

조선시대 선비들의 지리산 유산문화는 기존의 서구적 등산문화에 대비되는 인문학적 산악문화의 가치와 의미를 가진다. 지리산은 조선시대 유학자들의 도덕적 성찰의 산이었기에, 유학자들의 산에 대한 의미부여와 태도는 산의 인문적 의미에 대한 새로운 관점과 견해를 제시한다. 지리산의 유산과 유산문학의 결실로 꽃피운 조선시대 유학

자들의 명산문화 전개는 중국 산악문화의 전파와 교류를 반영한다.

지리산의 자연미와 명승지의 아름다움은 경관요소와 자연이 어울리고 상호작용으로 빚어진 자연미학이다. 지리산의 경관미학은 동아시아적 산수미학의 보편성과 한국적 대표성을 지니고 있다. 그것은 산악경관에 대한 서구미학적 가치의 기준과 범주를 넘어 인문적이고 정신적인 요소의 연계를 통한 새로운 미학적 개념을 요청한다.

2) 세계유산 등재기준의 정당성 제시

이상과 같은 지리산 문화경관의 가치가 등재기준 중에서 어떤 항목에 합당한지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이 요약·제시할 수 있다.²⁴⁾

우선 중점적인 지리산의 세계유산적 가치는 문화유산의 등재기준 (iii), (v), (vi) 항목이 해당된다. 차례대로 설명해보기로 하자.

‘문화적 전통의 증거(iii)’ 기준에 비추다면, 神山으로서의 지리산에 대한 사람들의 정신적 인식과 태도, 역사성이 깊고 형태적으로 다양한 산악신앙의 문화경관은 산과 인간관계의 보편적 탁월성의 증거가 될 수 있다. 지리산의 자연환경과 지리적 조건을 배경으로 형성되고 진화된 역사경관과 종교경관은 지리산의 문화적 전통을 대변하는 특출한 증거가 된다. 지리산의 운봉지역은 고원지대로서의 요새적 지형과 비옥한 토지를 바탕으로 가야소국이 형성, 발달하였으며, 5, 6세기에 축조된 80여기의 고분과 아막산성과 팔랑산성이 현존하고 있다. 종교경관으로서의 지리산은 산악신앙의 원형성과 복합성을 나타낸다. 지리산에는 산신신앙의 고대적 원형으로서 여산신이 나타난다. 유, 불, 선, 무교, 민간신앙, 풍수도참 등이 지리산에 집결되어 상호 교섭하였다. 지리산에는 6세기부터 9세기에 걸쳐서 중국에서 불교가 유입되면서 한국적인 특색을 가진 많은 사찰이 건립되어 산신신앙과 함께 숭배되었다. 그리고 지리산 산체에 있는 덕천서원은 산악문화의 영향을 받아 예의와 절의를 숭상하는 독특한 유교적 기풍을 이룬 남명사상의 근거지이자 남명학파의 무대였다. 아울러 기독교의 초기 한국선교사를 알 수 있는 종교사적도 있어서 한 마디로 세계적인 종교다양성의 보고이다.

‘인간과 환경과의 상호작용(v)’ 면에서 보자면, 지리산의 생활경관은 온대 중위도권 산지에서의 독특한 미작문명을 증거하면서 자연과 조화된 산지 이용과 거주 방식을 보여주는 탁월한 사례가 된다. 그러나 사회경제적 압력과 급속한 현대화로 인해 훼손될 위험에 처해있기에 보존할 필요가 있다. 지리산의 산촌경관은 수세기 동안 지리산의 자연환경에 적응하고 조화하면서 형성된 씨족공동체의 지속가능한 생활방식과 토지이용을 잘 반영한다. 지리산지에 발달한 계단식 논과 벼농사 경관에는 산지환경에의 적응과 토지이용의 전통적 기술이 집약되어 있다. 지리산권 마을에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풍수문화는 산지에서의 문화생태적 적응과 자연과 인문의 조화로운 결합을 보여주는 동아시아적 자연-인간관계의 독특한 코드가 된다. 지리산지의 역사적으로 형성된 삶의 터전과 생활사의 문화경관은 산지환경에의 문화생태적 적응을 반영하는 산지문화의 탁월한 보편적인 증거가 될 수 있다.

‘사건 혹은 전통, 예술 및 문화작품과 연관된 것(vi)’의 기준으로 보자면, 지리산은 인류무형문화유산결작인 판소리, 조선시대 유학을 대표하는 남명사상, 한국의 대표적인 산신신앙 제의인 남악제, 조선시대 유교지식인의 유산문학, 청학동 이상향이 탄생된 산실이었다. 동편제 판소리는 지리산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삶과 문화를 배경으로 탄생하였으며, 지금까지도 이곳 사람들이 널리 애창하고 있다. 또한 유학의 절의를 숭상하는 남명사상과 남명학파가 지리산권에서 발달하였으며, 덕천서원에는 오랫동안 유교적 제의와 강학이 진행되었다. 지리산 남악제는 통일신라에서 시작되어 천년을 이어온 국가적인 산악신앙의 의례예술이다. 지리산 유람문학은 조선시대 500여 년 간 유교지식인의 사상적 수양적 성찰을 목적으로 한 유산문화를 형성하였다. 100여 편의 유람록, 수천 편의 유람시는 지리산 관련 기록문화유산으로서의 훌륭한 가치를 지닌다. 지리산의 청학동 이상향은 한국의 이상향을 대표하며 동아시아 산지형 유토피아의 전형적인 사례이다.

그밖에도 지리산의 자연유산적 가치를 나타내는 것으로서 등재기준 (vii), (x) 항목이 해당될 수 있다.

‘자연미(vii)’ 기준으로 평가하자면, 지리산의 문화경관은 자연환경과의 어울림과 상호작용을 통해 탁월한 자연미학과 풍수미학을 성취하였다. 지리산의 아름다움은 역사적 과정에서 수많은 사상가들과 문인들에게 영감과 찬탄의 대상이 되었으며, 사상, 문학, 예술 등의 결과물을 통해 지리산의 자연미학으로 정립되는 토대가 되었다.

‘생물다양성의 현장 보존을 위한 자연서식지(x)’ 면에서 보자면, 지리산에는 약 5,000종의 동식물이 서식하는 생물다양성의 보고이며, 서식지 규모가 남한에서는 가장 큰 483km²이다. 지리산은 토산(土山)으로 고산, 계곡, 습지 등이 분포하여 다종다양한 생물종이 서식할 수 있는 자연환경을 갖추었다.²⁵⁾ 지리산에는 지리산 국립공원특별보호구 17개 구역 166.30km² 및 생태·경관보전지역 20.20km² 등 합계 186.50km²가 관계법령에 의하여 보호되고 있다. 이러한 자연적 가치를 인정받아 지리산은 2007년에 IUCN 카테고리 II 지역으로 인증되었다.²⁶⁾

기타 부차적이고 세부적인 가치요소를 나열하자면 다음과 같다. 화엄사사사자석탑과 각황전 앞석등, 사사자삼층석탑, 연곡사의 동부도·북부도 등은 동아시아 석탑문화를 꽃피운 한국적 전개와 발전양상을 증거하는 ‘창의적 걸작’(i)이 될 수 있다. ‘인류의 가치 및 문화의 교류의 측면(ii)’으로는 지리산지 종교신앙과 제의의 융합적 측면을 들 수 있다. ‘인류역사의 단계를 예시하는 건축, 기술, 경관유형(iv)’에 해당하는 것으로는 천년의 숲, 함양상림경관의 인공방재림 성격과, 18세기 이후 온대지역 산지농업경관을 대표하는 벼경작 및 산지 관개·수리 기술의 탁월한 사례로 들 수 있다. 그리고 진정성의 측면으로서는 지리산 문화유산의 역사성과 현재까지 주민들에 의해서 자체적으로 계승, 진행되는 살아있는 문화전통이라는 측면이 부각될 수 있다.

5. 요약 및 맺음말

지리산과 지리산문화는 지금껏 한국이라는 공간적 범주와 인식의 지평에서 평가·이해되었지만 이제 세계유산의 보편적 가치라는 잣대와 차원으로 새로운 조명이 요청되는 시점에 와있다. 이 글

은 지리산 문화경관의 세계유산적 가치와 구성에 관해 학술적인 연구를 시도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지리산은 오랫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지리산을 생활문화의 터전으로 살아온 한국의 대표적이고 전형적인 명산으로서, 자연과 문화의 상호작용으로 빚어진 문화경관의 형성을 탁월하게 반영하고 있다. 따라서 지리산의 세계유산 등재전략은 문화경관이라는 통합적 범주의 틀이 적합하다. 지리산의 문화경관은 동아시아 산악문화의 문화생태적 적응과 조화라는 전형을 제시하는 것으로, 인간과 환경 간 상호작용의 다양성, 복합성, 결합성, 조화성을 탁월하게 드러내는 세계유산적 가치(OUV)의 사례로 평가될 수 있다. 이에 걸 맞는 지리산 문화경관의 개념적이고 상징적 이미지는, ‘신성한 어머니 지리산’이라고 표상할 수 있다.

지리산의 세계유산 신청 명칭을 제시하면, 단순 지명으로서의 ‘지리산’, 등재의 내용 유형으로서 ‘지리산의 문화경관’, 문화경관의 주요대상을 표현하는 명칭으로서 ‘지리산의 종교·문화경관’, 지리산이 갖는 상징성까지 반영된 ‘지리산의 종교·문화경관-신성한 어머니의 산’이라는 명칭이 가능하다.

지리산이 갖는 세계유산적 가치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지리산은 수많은 사람들의 오랜 생활문화의 터전으로서 많은 역사유적과 종교경관, 생활경관이 남아있다. 지리산의 문화경관은 산의 신성한 장소성과 사람의 생활문화터전이 통합된 새로운 지평의 산악문화경관의 개념을 제시한다. 지리산은 예부터 ‘신성한 어머니산’으로 여겨져 많은 사람들이 거주하였고 신성시되었다. 삼국시대의 산성과 가야 고분을 비롯한 각종 역사 유적이 남아 있고, 국가적인 산신제의가 행해진 곳으로 현재까지 ‘남악제’로 이어지고 있다. 불교 사찰에는 수많은 문화재가 있고, 현재까지 불교신앙이 성행하여 지리산의 살아있는 문화전통을 유지한다. 그리고 다양한 풍수경관이나 다량이 논 등의 생활경관도 함께 존재하면서 역사, 종교문화 등과 어울려 지리산 문화경관의 모자이크를 이루고 있다. 지리산의 영산 관념과 그 문화적 관계의 태도로서 나타나는 산악신앙, 풍수사상과 자연미학, 농경기술 등의 생활사는 산지환경에 대한 문화생태적 적응 및 문화경관의 형성을 통한 인간화, 문화화, 미학화의 과정이며 중위도 온대지역 대륙 東岸에

나타나는 산악문화 성취의 탁월한 증거가 된다.

동아시아에서 산은 자연과 생태의 보루이며, 산악문화는 지속가능한 삶의 양식이다. 온대 동아시아 지역 산지에 역사적인 생활문화터전의 총합체로서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증거하는 지리산의 문화경관은 유네스코 세계유산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는 한 유형이 될 수 있다. ‘신성한 어머니 산, 지리산’이라는 표상은 한국의 산과 산지문화를 대표하고 집약하는 상징적인 전형이 될 뿐 아니라, 세계인의 유산 가치로서, 산은 영혼의 고향이자 생명의 근원이라는 이미지로 지구촌의 인류들에게 소중히 간직될 수 있다.

앞으로도 지리학계를 비롯한 관련 학계에서 지리산을 비롯하여 한국의 자연 및 문화유산이 가지는 세계유산적 가치와 의미에 관한 활발한 연구가 후속되기를 기대한다.

주

- 1) 2007년에 등재된 제주 화산섬 및 용암동굴의 공간적 범주에는 한라산이 주요 범위에 포함되어 있지만, 등재의 명칭에서 나타나듯이 산 자체가 유산 가치의 키워드가 되지 못하였다.
- 2) 잠정목록의 문화유산으로는 강진 도요지, 공주부여 역사유적지구, 중부내륙산성군, 남한산성, 익산 역사유적지구, 연전, 낙안읍성, 외암마을이 등재되었고, 자연유산으로는 설악산 천연보호구역, 남해안 일대 공룡화석지, 대곡천 암각화군, 서남해안 갯벌, 우포습지가 등재되었다. 그 중 공주부여 역사유적지구는 기존 무령왕릉(1994)에서 확장된 것이며, 중부내륙산성군은 기존 삼년산성(1994)에서 확장된 것이다.
- 3) 일본의 筑波大學 대학원에는 세계유산전공과 세계문화유산 전공과정이 개설되어 있다.(<http://www.heritage.tsukuba.ac.jp/>)
- 4) 중국 북경대학의 UNESCO亞太地區世界遺產培訓與研究中心이 그 사례이다.
- 5) 이해은(2011, 70-73)에 의하면, “지리학은 세계유산의 특징을 통찰해서 볼 수 있는 가장 적절한 학문이다. 세계유산은 지리학의 특징과 맞물리며 지리학자들에 중요한 연구주제 중의 하나가 되는데, 장소 자산, 지역공동체와의 연계성, 문화경관, 교육 등의 네 가지 분야에서 세계유산과 지리학의 관련성을 찾을 수 있다”고 하였다.
- 6) 지리학 국내학술지에 게재된 연구물은 임근옥(2008), 고선영(2009), 임근옥·전현식(2009), 이해은(2011) 정도가 있다.
- 7) 자세한 내용은 김아네스, 2011, 지리산 산신제의 역사와 지리산남악제, 남도문화연구, 20, 7-36을 참조

할 것.

- 8) 최석기(2011, 25)에 의하면, 지리산이 방장산이라는 인식은 조선전기 이석형, 김종직 등의 문집에서부터 나타나기 시작한다고 한다.
- 9) 문제점은, 현존하는 산악신앙 경관이 역사적 완전성의 측면에서 부족한 점을 지적할 수 있다. 그리고 지리산 남악제 의례가 1908~1969년 사이에 실행되지 못했다는 점과, 지리산신사(남악사)의 이전 및 신축(1969)에 따른 진정성 문제도 지적될 수 있다.
- 10) UNESCO, World Heritage Centre, 2008, *Operational Guidelines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World Heritage Convention*. WHC.08/01, January 2008, 91.
- 11) 자세한 내용은 강정화 등, 2008, 지리산 유산기 선집, 경상대 경남문화연구원을 참조할 것.
- 12) 최원석(2010)에 따르면 지리산 권역 5개 시군의 자연마을에 500여개의 풍수 형국이 있었던 것으로 집계되었다.
- 13) 문제점으로는 근대화로 인한 마을경관의 변모, 보전의 진정성, 완전성 문제를 지적할 수 있다.
- 14) 유네스코한국위원회, 2010, 세계유산 새천년을 향한 도전, 서울(UNESCO World Heritage Centre, 2007, World Heritage—Challenges for the Millennium, Paris).
- 15) 문제점으로 지적할 수 있는 것은, 상림은 지리산지에 속하고 있지 않아서 지리산지와 연계성이 약하다는 점이다. 따라서 상림은 지리산지와는 별도로 연속(확장)유산으로 추가하여 포함되어야 할 대상이다.
- 16) 자세한 내용은 기근도, 2011, 지리산의 자연환경과 지형, 지리산 인문학 강좌 발표자료를 참조할 것.
- 17) 자세한 내용은 오장근, 2011, 지리산 국립공원 생물자원의 가치, 지리산 세계유산 등재용역 2차 학술세미나 발표자료집, 1-3을 참조할 것.
- 18) 문제점은 1993년 이후로 복원된 구상나무 군락지 및 복원된 반달곰의 진정성에 관한 점이다.
- 19)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의 운영지침에 의하면, “전통적인 토지이용 형태의 지속적인 존재는 세계의 많은 지역에서 생물다양성에 기여하였다. 전통적인 문화경관이 보전은 생물다양성을 유지하는 데에 도움을 준다.”라고 공식적으로 명시되었다.(UNESCO, World Heritage Centre, 2009, *World Heritage paper 26*, 19).
- 20) 관련된 비교유산으로서는, 중국의 세계문화유산인 여산 국립공원의 공산당(모택동) 유적지가 있다.
- 21) Criterion (vii): “최상의 자연 현상이나 뛰어난 자연미와 미학적 중요성을 지닌 지역을 포함할 것.”
- 22) 동아시아의 문화전통에서 신과 사람은 둘이 아니며, 사람은 몸에 精·氣·神이, 자연은 산에 神·物이 통합되어 있다.
- 23) 자세한 내용은 최원석, 2009, 한국 이상향의 성격과 공간적 특징, 대한지리학회지, 44(6)을 참조할 것.
- 24) 등재 정당성에 관한 설명의 내용 중에 (iii), (v), (vi), (x) 항목은 필자와 함께 지리산세계유산 등재 문화재청 연구용역에서 책임연구원을 역임하였던 김

- 봉곤 순천대 HK연구교수와 공동으로 작성한 것임을 밝힌다.
- 25) 자세한 내용은 서정호, 2011, 11, 지리산의 세계자연유산 등재 대상과 범위, 지리산 세계유산 잠정목록작성을 위한 국제학술대회 발표자료집, 103-120을 참조할 것.
- 26) 이상과 같은 지리산의 자연유산적 가치를 구성하는 지리산의 생태적 잠재력과 자연미학, 생물다양성 등의 측면에 대한 정당성은 국제적인 수준의 학술적 논문이 뒷받침될 필요가 있다.

문헌

- 강정화·황의열·구경아, 2008, 지리산 유산기 선집, 경상대 경남문화연구원, 브레인, 창원.
- 고선영, 2009, 제주 세계자연유산 등재와 생태관광, 한국지역지리학회지, 15(2), 215-225.
- 기근도, 2011, 지리산의 자연환경과 지형, 경상대학교 지리산 인문학 강좌 발표자료.
- 김아네스, 2011, 지리산 산신제의 역사와 지리산 남약제, 남도문화연구, 20, 7-36.
- 서정호, 2011, 지리산의 세계자연유산 등재 대상과 범위, 지리산 세계유산 잠정목록작성을 위한 국제학술대회, 논문집, 103-120.
- 오장근, 2011, 지리산 국립공원 생물자원의 가치, 지리산 세계유산 등재 용역 2차 학술 세미나, 논문집, 1-12.
- 이혜은, 2011, 지리학자의 관점에서 본 세계유산, 한국사지리지학회지, 21(3), 65-74.
- 임근욱, 2008, 관광자원으로서 세계유산에 대한 화산 경관 특성, 한국사지리지학회지, 18(2), 75-94.
- 임근욱·진현식, 2009, 카르스트 지형 세계유산에 대한 자연관광 경관 특성, 한국사지리지학회지, 19(1), 59-71.
- 정치영, 2006, 지리산지의 농업과 촌락 연구,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서울.
- 최석기, 2011, 조선시대 士人들의 지리산·천왕봉에 대한 인식, 2011년 인문한국 지원 사업 문학분야 학술대회, 논문집, 23-48.
- 최원석, 2009, 한국 이상향의 성격과 공간적 특징, 대한지리학회지, 44(6), 745-760.
- 최원석·구진성 편저, 2010, 지리산권 풍수자료집, 이회, 서울.
- 최원석, 2011a, 산의 세계유산과 지리산의 세계유산 등재전략, 지리산 세계유산 등재 용역 1차 학술세미나 발표자료집, 11-27.
- 최원석, 2011b, 지리산 문화경관의 세계유산적 가치와 구성, 세계유산 잠정목록 작성을 위한 국제학술대회(지리산 세계유산 무엇을 등재할 것인가?), 논문집, 183-229.
- 유네스코한국위원회, 2010, 세계유산 새천년을 향한 도전, 서울(UNESCO World Heritage Centre, 2007, World Heritage—Challenges for the Millennium, Paris)
- 지리산권문화연구원, 2011.12, 지리산 세계유산 등재 연구용역 종합보고서.
- UNESCO, World Heritage Centre, 2008, *Operational Guidelines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World Heritage Convention*. WHC.08/01, January 2008.
- UNESCO, World Heritage Centre, 2009, *World Heritage paper 26*.
- 유네스코 세계유산 센터 <http://whc.unesco.org>
- (접수: 2011.12.15, 수정: 2012.1.17, 채택: 2012.2.16)